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8.4

## 미 증시, 반발 매수세와 차익실현 매물 충돌하며 소폭 하락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반발 매수세와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되며 약보합 마감

•미 증시는 전일에 이어 신용등급 강등을 빌미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특히 균열이 보이는 고용시장 영향으로 단기 국채 금리는 하락했으나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소화하며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리츠 금융, 유틸리티 등이 하락 주도.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과 전일 하락이 컸던 반도체 및 대형 기술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음. 그럼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는 지수 상승을 제한하며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이다 결국 약보합 마감(다우 -0.19%, 나스닥 -0.10%, S&P500 -0.25%, 러셀2000 -0.28%)

### 특징 종목: 시간 외 애플 2% 하락, 아마존 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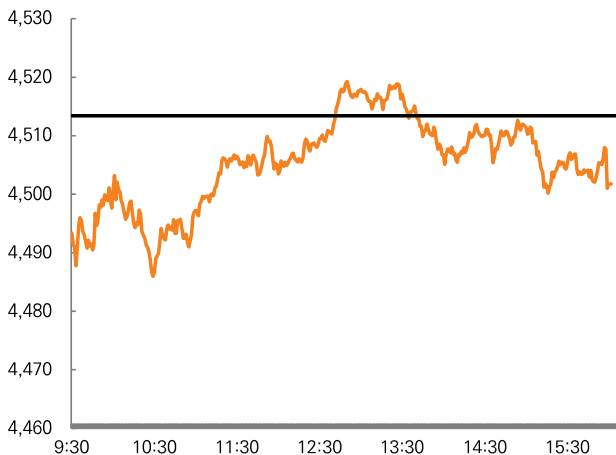
•애플(-0.73%)이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서비스 매출과 맥북 매출은 견고 했으나, 아이패드는 물론 아이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자 시간 외 매물 출회되며 1%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아마존(+0.55%)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시간 외로 7% 상승. 특히 AWS 부문은 10% 증가 전망을 상회한 12% 증가했으며 가이던스 또한 예상을 상회한 점이 영향. 쿼컴(-8.18%), 페이팔(-12.32%) 등은 부진한 실적 발표 후 하락. 전기차 충전업체인 EVgo(+21.70%)는 예상보다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

### 한국 증시 전망: 종목 쓸림 현상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는 0.05%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7.5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1% 상승. KOSPI는 0.3% 내외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소화하며 장 초반 하락하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다만, 미국 고용시장은 견고하지만 균열이 시작했다는 점, 그로 인해 향후 소비 감소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부담.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이 AWS 부문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하고 예상을 상회한 가이던스 발표 등으로 시간외로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애플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아이폰 매출 부진으로 하락하는 차별화를 보여 관련 결과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한 가운데 여전히 종목 쓸림 현상이 진행되며 지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05.39	-0.42	상해종합	3,280.46	+0.58
KOSDAQ	920.32	+1.16	홍콩항생	19,420.87	-0.49
DOW	35,215.89	-0.19	베트남	1,210.95	-0.78
NASDAQ	13,959.71	-0.10	유로스톡스 50	4,304.63	-0.73
S&P 500	4,501.89	-0.25	영국	7,529.16	-0.43
캐나다	20,120.74	-0.48	독일	15,893.38	-0.79
일본	32,159.28	-1.68	프랑스	7,260.53	-0.7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① 고용시장 특징 ② 장기 국채 금리 급등

미국 7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53.9보다 둔화된 52.7로 발표. 신규주문이 소폭 둔화된 가운데 고용지수가 53.1에서 50.7로 위축. ISM 제조업지수에서 고용지수가 48.1에서 44.4로 둔화된 데 이어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줌. 실제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비용에 신중을 기하면서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

미국 7월 대량 해고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4만 709건에서 2만 3,697건으로 감소. 대부분의 업종이 감소했으나, 자동차 부문이 지난달 595건에서 9510건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 연간 전체로는 지난해 36만 건 정도였는데 지난달 이미 연간 수준을 넘어서 현재는 48만 건을 상회. 그 중 46%인 22만 건은 경제 및 시장 상황에 기인한다고 발표.

물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22.1만 건보다 소폭 증가한 22.7만 건으로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절대 수준은 낮아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

결국 고용이 아직은 견고함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임을 감안 하반기 대량 해고 즉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는 고용 위축의 진행으로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긍정적. 다만 소비 감소로 인한 대미 수출의 감소로 신흥국 경제의 위축 가능성을 높임.

한편, 국채 금리 특히 장기물이 급등하고 있음. 견고한 고용지표 등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 되는데다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소화하며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가까이로 상승.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이 채권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흐름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그렇지만, 바젤 III에서는 AAA와 AA+ 등급의 채권은 동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자산배분에서는 AAA 등급 채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매도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음.

그렇지만, 모기지 금리의 상승을 불러와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기와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소화하며 국채 금리의 급등이 진행되자 건설, 리츠 금융, 유틸리티 등 배당 관련 종목군의 하락이 뚜렷. 더불어 금리 급등이 기술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를 제어한 점도 특징.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시간 외 아마존, 7% 내외 상승, 애플 1% 하락

애플(-0.73%)이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서비스 매출과 맥북 매출은 견고했으나, 아이패드에는 물론 아이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자 시간 외 매출 출회되며 1%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아마존(+0.55%)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시간 외로 7% 상승. 특히 AWS 부문은 10% 증가 전망을 상회한 12% 증가했으며 가이던스 또한 예상을 상회한 점이 영향.

퀄컴(-8.18%)은 예상보다 낮은 가이던스 발표 여파로 급락. 익스피디아(-16.38%)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로 큰 폭으로 하락. 부킹닷컴(-1.56%)도 동반 하락.페이팔(-12.32%)은 예상을 약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마진율이 전망을 하회하자 하락. 로빈후드(-7.23%)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활성 사용자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 로쿠(-3.05%)는 씨티가 과도한 상승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AMD(+3.48%)는 Benchmark가 AI 산업에서 최고의 회사중 하나라며 목표주가를 108달러에서 145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 엔비디아(+0.56%)도 동반 상승. 솔라엣지(-2.93%)는 전일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이 지속. 그러나 선런(+7.62%)은 크게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며 급등. 전기차 충전업체인 EVgo(+21.70%)는 예상보다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 엑슨모빌(+1.74%)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 기대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08	대형 가치주 ETF (IVE)	-0.47
클린테크 ETF (CTEC)	-0.58	중형 가치주 ETF (IWS)	-0.36
소매업체 ETF (XLY)	+0.24	소형 가치주 ETF (IWN)	-0.15
온라인소매 ETF (EBIZ)	+0.10	대형 성장주 ETF (VUG)	-0.23
미국 인프라 ETF (PAVE)	-0.31	중형 성장주 ETF (IWP)	-0.23
핀테크 ETF (FINX)	-1.05	소형 성장주 ETF (IWO)	-0.3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02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20
클라우드 ETF (CLOU)	+0.5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60
사이버보안 ETF (BUG)	+0.62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34	미국 국채 ETF (IEF)	-0.7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63	하이일드 ETF (JNK)	-0.34
바이오섹터 ETF (IBB)	-0.37	신흥국 채권 ETF (EMBD)	-0.59
로봇&AI ETF (BOTZ)	-0.54	물가연동채 ETF (TIP)	-0.62
반도체 ETF (SMH)	-0.29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9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663.21	+0.95	+1.21	+6.03
경기소비재	1,326.59	+0.34	-0.28	-1.36
금융	581.98	-0.02	-0.36	+3.16
커뮤니케이션	224.82	-0.17	-0.31	+3.91
필수소비재	790.90	-0.17	+0.09	+0.86
IT	3,078.00	-0.32	-1.25	+0.05
헬스케어	1,547.02	-0.50	-1.45	+0.72
소재	527.26	-0.60	-1.08	+0.71
산업재	921.18	-0.61	-0.54	+1.37
부동산	234.90	-1.35	-1.48	-1.58
유틸리티	328.62	-2.29	-3.75	-1.9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쓸림 현상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는 0.05%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7.5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1%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전일 선 반영되었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소화하며 보험권 등락을 보임. 특히 쓸림 현상이 진행되며 변동성을 키웠던 2차 전지 업종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상승하자 지수도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물론,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되는 등 수급적인 부담은 여전히 KOSPI는 0.42% 하락했으나 KOSDAQ은 1.16%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소화하며 장 초반 하락하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불어 일부 전기차 충전소 업체의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전기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

다만, 미국 고용시장은 견고하지만 균열이 시작했다는 점, 그로 인해 향후 소비 감소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부담. 더 나아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채권 매도 등으로 급등해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여전히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부담.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이 AWS 부문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하고 예상을 상회한 가이드스 발표 등으로 시간외로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애플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아이폰 매출 부진으로 하락하는 차별화를 보여 관련 결과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한 가운데 여전히 종목 쓸림 현상이 진행되며 지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서비스업 지수 둔화

미국 7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53.9나 예상했던 53.0을 하회한 52.7로 발표. 신규 주문(55.5→55.0), 고용지수(53.1→50.7), 재고지수(55.9→50.4) 등이 둔화된 가운데 물가지수(54.1→56.8)는 상승한 점이 특징.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22.1만 건이나 예상했던 22.5만 건을 소폭 상회한 22.7만 건으로 발표. 4주 평균은 23만 3,750건에서 22만 8,250건으로 감소.

미국 7월 대량 해고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4만 709건에서 2만 3,697건으로 감소. 특히 자동차 부문이 지난달 595건에서 9510건으로 크게 증가.

미국 8월 공장 주문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4%나 예상했던 1.7% 증가보다 양호한 2.3% 증가로 발표.



## 국제유가,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이슈로 상승

국제유가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9월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 원유 감산을 연장한다고 발표. 특히 감산이 추가적으로 연장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 이러한 공급 이슈로 국제유가는 2% 넘게 상승. 더 나아가 러시아도 9월 원유 수출을 하루 30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유가 상승에 영향. 한편, 미국 천연가스와 유럽 천연가스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체 수요 증가 기대 속 큰 폭 상승.

달러화는 견고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일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발표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2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3.3%에서 1.6%로 둔화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파운드화는 BOE의 25bp 금리인상 후 추가 금리인상 기조 약화로 달러 대비 약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진행되며 강세.

국채금리는 균열이 보이는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단기물은 하락하기도 했으나,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소화하며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 물론, 영국의 영란은행이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시장 일각에서 전망했던 50bp 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도 단기물 하락 요인.

금은 장기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을 기반으로 강세. 곡물은 대두가 대 중국 수출 등 수출 수요 증가에 기반해 상승. 그러나 농무부가 밀 수출은 예상에 부합되고 옥수수는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발표하자 하락. 더 나아가 에탄올 용 수출 구매 가격이 소폭 하락한 점도 옥수수 하락 요인. 다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탄올 등에 대한 대체 수요 기대로 낙폭 제한.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8% 상승. 철근은 보합.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1.55	+2.87	+2.10	Dollar Index	102.472	-0.12	+0.69
브렌트유	85.14	+2.52	+1.80	EUR/USD	1.0948	+0.09	-0.28
천연가스	2.57	+3.19	+2.57	USD/JPY	142.54	-0.54	+2.19
금	1,968.80	-0.27	-0.79	GBP/USD	1.2708	-0.02	-0.69
은	23.70	-0.76	-2.78	USD/CHF	0.8744	-0.35	+0.61
알루미늄	2,230.00	+0.95	+1.13	AUD/USD	0.6550	+0.18	-2.37
전기동	8,611.00	+1.19	+0.49	USD/CAD	1.3356	+0.04	+1.00
아연	2,485.00	+0.10	+1.26	USD/RUB	94.1579	+0.12	+3.82
옥수수	493.50	-1.15	-8.76	USD/BRL	4.9128	+2.13	+3.57
밀	627.00	-1.84	-11.86	USD/CNH	7.1792	-0.30	+0.12
대두	1,325.25	+0.30	-5.20	USD/KRW	1,299.10	+0.05	+1.67
커피	164.75	-1.32	+2.04	USD/KRW NDF1M	1,297.52	-0.07	+1.2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175	+9.76	+17.69	스페인	3.641	+6.40	+16.10
한국	3.860	+8.00	+22.30	포르투갈	3.338	+5.40	+16.70
일본	0.653	+2.50	+20.30	그리스	3.878	+5.80	+9.90
독일	2.605	+7.00	+13.10	이탈리아	4.274	+8.60	+20.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